

도예로 '예술가 꿈' 빚어오

국립광주박물관 어린이박물관 리모델링 마치고 다음달 2일 개관 '오밀조밀 도자정원' 등 20여개 체험프로그램 운영

예로부터 도기(陶器)는 화초를 담거나 그 자체로 예술작품이 되기도 했다. 선조들은 윤기없고 무른 질그릇 하나라도, 그 안에 탁주 한 사발 담고 이야기꽃을 피워 낼 줄 아는 지혜가 있었다. 인고의 시간을 거쳐 만들어 내는 도예품 하나는, 인내심과 겸박함을 깨달아가는 매개가 되기도 했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이애령) 어린이박물관이 3년여에 걸친 리모델링을 마치고 '조물조물 꿈을 빚는 도자기'를 주제로 내년 1월 2일 재개관한다. 이에 앞서 20일 오전 어린이박물관에서 새단장한 공간을 사전에 둘러보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애령 관장을 비롯해 아시아문화전당 김상욱 기획운영관, 광주시 유아교육진흥원 김경례 원장, 동강대부설어린이집 7세반 어린이 30여 명이 참석했다.

사실 남도 도자문화는 백제의 해상교통로를 따라 발전한 차(茶)문화와 맞물려, 자연스럽게 도자기 산업도 발전해 왔다. 광주·전남 도예에는 오묘한 변화, 투박하고 심미적인 남도인의 성정이 녹아 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그러면서도 고급스럽지만 차가운 느낌을 주는 강진 청자부터 서민적이고 부드러운 해남 청자 등 그 스펙트럼도 넓다. 도자문화가 인류 문명과 지역의 발달·변천사와 궤를 함께 해 온 것.

이번 개막식에서 어린이들은 도슨트의 안내에 따라 전시관 안을 탐방하며 고사리손으로 직접 도예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전시관은 총 7개의 소주제와 20여 개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으며, 아이들은 다양한 재료 속에서 도자기를 찾는 '토닥토닥 흙과 도자기' 코너부터 모션인식 체험으로 도자기 무늬를 표현하는 '오밀조밀! 도자 정원!' 등에 참여했다.

이애령 관장은 "새롭게 단장한 박물관 공간을 우리 전통문화예술, 그중에서도 도자기 문화를 접



광주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이 3년 여에 걸친 리모델링을 마치고 내년 1월 2일 재개관한다. 사진은 '철썩! 보물선!' 체험 코너.

게 배울 수 있는 콘텐츠로 가득 채웠다"며 "박물관을 견학하는 어린이들이 문화적 감수성을 충전하고, 성장의 자양분을 얻어 미래의 주역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이들은 지도 선생님 설명에 따라 도자기를 굽는 가마 모형의 전시장에 들어가기도 했다. '타닥타닥 도자기 가마!' 코너에서는 호응이 가장 좋았다. 몸의 움직임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불꽃과 도자기 무늬를 볼 수 있었는데, 푹푹푹 푹푹 가마속 불꽃 그 자체가 되어보는 콘텐츠였다. 빨간불, 노란불, 하얀불, 파란불 등 아이들의 움직임과 맞물려 불꽃이 일었다. 몰입형 콘텐츠 처음 경험해보

는 어린이들은 두눈을 동그랗게 뜨며 박물관 이곳저곳을 둘러봤다. 어린이 박물관은 '살아' 있었다.

콘텐츠가 범람하는 뉴미디어 시대, 어린이박물관 컨셉을 '도예'로 잡았다는 점이 신선하다. 모션인식, 도자기 사진찍기 프로그램, 인터랙티브 체험, 신체놀이 등 20여 개 프로그램은 도자기를 소재로 몰입감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1일 총 5회 운영, 사전예약을 통해 회당 80명으로 관람인원을 제한한다. 1회 50분 진행하며 6-10세 어린이들에게 적합하다. 무료 관람.

/글·사진=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사람과 사람, 그 관계의 거리

이진 소설가 네번째 소설집 '소설의 유명' 발간

"물처럼 흘러보낸들 어땠는지? 바람처럼 날려 보낸들 또 어땠는지? 아무도 아쉬워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무도 섭섭해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니 아니, 그런 물이나 그런 바람에 대해 알게 뭐람? 출발한 적이 없는 데 다리를 긁어 있을 게 뭐람? 발신자가 없는데 수신자가 생겨날 까닭이 뭐람?"

이진<사진> 소설가의 말이다. 이 작가가 네 번째 소설집을 발간하면서 화두처럼 던질 말은 한번쯤 소설을 쓰는 이유와 작가의 존재 방식을 생각하게 한다. '소설의 유명'이라는 작품집 제목이 암시하는 것처럼 작가는 어쩌면 '유명'일 수도 있는 소설을 붙잡고 여전히 사투를 벌이고 있다.

작가의 창작에 대한 열망은 어린 시절의 꿈을 쫓아 오늘에 이른 것이다. 대학에서 자연과학대학 생물학과를 졸업하고 보건직 공무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으나 문학의 길로 입문했다. 뒤늦게 대학원에 입학해 문예창작학으로 석사학위를, 국문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것만 봐도 문학에 대한 열망이 어떠한지를 짐작할 수 있다.

이번 소설집에는 '소설의 유명을 위한 습작', '초록 알람', '은행나무 협주곡' 등 모두 9개의 작품이 실려 있다.

소설은 대체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거리를 다른 작품이 주를 이룬다. 아마도 작가에게 '관계'나 '거리'는 '유명'으로 치부되는 어떤 것인지 모른다.

방송호 문학평론가는 이번 작품집에 대해 "사람



과 사람 사이에 얽히는 마음의 거리, 그들의 경계를 오가는 대화를 통해 이진은 갈등에서 갈등으로 이어지는 내면의 기류를 표면으로 꺼낸다"고 평한다.

소설 '코로나 시대의 싱글 라이프'는 바이러스와 공존하는 삶의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외견상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안의 서사는 과거의 주인공이 직면해야 했던 불편한 시간들을 초점화한다.

어머니를 떠나보내야 했던 일, 유산, 이혼 등 주인공이 헤쳐와야 했던 시간들은 상실과 고통의 연속이었다. 화자는 상처받고 희생당한 주인공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묵시적으로 묻는다. 그것은 '늦은 애도이기 전에 돌봄'이 아닐까.

방송호 평론가는 "이진의 서사에서 돌봄이란 돌(아)봄의 다른 말이다. 여기에 이진 소설의 힘이 있고, 그의 사랑이 새롭게 울토고 있다"며 "소설과 우주는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아니, 당신 역시 하나의 우주라는 진실"이라고 말한다.

한편 광주 출신 이진 작가는 현재 인문학 강의와 문학 연구 활동을 병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창', '꿈지를 위한 방법서설' 등의 소설집과 장편 '하늘꽃 한송이, 너는', '허균, 불의 향기' 등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시립창극단원 실기평정 공정성 논란

스승이 평가위원...노조, 광주시에 감사 요청

광주시립창극단의 예능단원 실기평정과 관련, 사제지간이 심사대상에 포함돼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광주시립예술단지부(노조)는 지난 14일 '광주시립예술단원 실기평정 배제대상 전형위원의 건'으로 광주시 감사위에 감사를 요청했다. 이에 앞서 노조는 광주예술의전당(전당) 측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문제 없다"는 설명이 돌아왔다고 밝혔다.

전당의 '2023년 시립예술단원 정기평정 계획'에 따르면 "전형위원이 시립예술단원과 4촌 이내 친·인척관계이거나 특수관계(사제지간 등)인 때는 배제"하게 돼 있다.

광주시립예술단 예능단원들은 2년마다 실기평정을 거쳐 그 결과로 예능 등급이 조정되고 급여에도 영향을 받는다.

노조에 따르면 13일 광주시립창극단 단원 실기평정 전형위원 중 배제 조건(사제지간)에 해당하는 위원이 포함돼 있었다. 해당 위원은 2017년부터 2021년 말까지 창극단 예술감독으로 재직했다.

광주예술의전당 관계자는 "수많은 전형위원 후보자 가운데 무작위로 5명을 최종 선정해 실기평정을 진행한 것"이라며 "실기평정 평가는 최고점·최저점을 제외하고 평균값으로 진행해 단원 위원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사제지간을 명단공개할 수도 없고, 먼저 말해주지 않는 한 전당측에서 선제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며 "현재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광주 문예지 '문학들' 겨울호 나왔다

'서울의 봄' 흥행몰이 기세가 매섭다. 현재 약 930만 명 정도가 관람을 할 정도로 영화에 대한 반응이 뜨겁다. 역사를 모티브로 영화가 흥행몰이를 하고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서울의 봄'은 민주주의를 기대했던 시민들의 바람이 물거품이 되고 신군부가 정치 전면에 나서게 된 암흑의 역사를 그렸다.

광주에서 발행되는 종합문예지 '문학들'이 겨울호(통권 74호) 특집으로 '역사, 역사적인 것의 귀환'을 다뤘다. 노대원 평론가는 'Back to the Future, 과거로 시간 여행하는 SF'에서 렌 리우

SF 소설의 역사적 상상력을 이야기한다. 노 평론가는 "소설은 과학소설 특유의 가상의 과학기술의 발견으로 시간 여행을 가능하게 된 세계를 다룬다. 그리하여, 과거의 사건들, 특히 일본 제국주의 731부대의 잔혹한 실험을 직접 경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역사와 기억, 진실과 인식 사이의 경계를 허물어뜨린다"고 분석한다.

손정수 평론가는 '이야기로 만들어 낸 역사 속 섬과 동굴-역사적 자산을 모티브로 한 최근 한국 소설의 경향?'에서 "한편에서는 먼 역사를 스토리텔링의 문대로 자유롭게 활용하는 새로운 현상을



목격할 수 있는가 하면, 그 반대편에서는 들춰보기 곤란한 역사의 상처를 애써 응시하는 태도를 발견할 수 있다"고 진단한다.

문인들이 각기 장소를 인문적으로 조명하는 장소 '들'에는 고영서 시인의 '무등 하늘과 땅 사이

에서'가 게재됐다. 고 시인은 무등 인근을 돌아보다 보면 사람이 글을 닦는 것인지, 공간이 사람을 닦아 가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시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고 언급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